

골목상권 구원자 백종원의 '골목식당' 심폐소생술

젠트리피케이션 유일한 대안은 골목상권 활성화 '골목식당' 백종원, 골목 자영업자에 노하우 제시

오래된 마을에 이색적인 가게들이 번성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 세입자는 쫓겨나고 작은 가게들은 프랜차이즈 매장의 기세에 내몰리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BS 새 예능프로그램 '골목식당'은 골목 상인들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비롯된다. 주제는 '장사의 신'이라 불리는 백종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백종원은 스타 파워 마케팅으로 골목 상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부산에서는 '백종원 조레'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 보호법을 추진중이기도 하다. 그를 두고 '골목상권 파괴자'라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3일 서울 마포구 대학동 한 카페에서 만난 백종원은 "제가 하는 프랜차이즈는 활성화된 먹자골목에서 높은 권리금을 주고 한 판 붙는 사례가 많다"라고 해명했다.

"3대전왕' 때 지방의 한 식당에 가면 그 식당에만 사람이 몰려 육을 먹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식당들에도 손님들이 든다. 순간적으로는 한곳에 몰리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골목길 전체가 살아난다."

'3대전왕'부터 '푸드트럭', '골목식당'에 이르기까지 백종원은 단순히 음식, 맛집 소개에만 그쳤다면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백종원의 설명처럼 '골목식당'은 죽어가는 골목을 살리고, 이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담은 '거리 심폐소생 프로젝트'다.

그는 골목상권 침체가 아닌 '상생'을 꿈꾼다고 밝혔다. "외식업자로서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 먹는 것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줄을 서게 만들고 생산자들에게 대한 이해도 높이고 싶었다."

'골목식당'의 첫 거리로 서울이대 앞 거리가 낙점됐다. 개그맨 남창희와 Y2K 출신 고재근이 백종원 사단'으로 전격 합류하고 본인들의 이름을 딴 '남고식당'을 운영하는



다. 백종원은 이대 골목이 강남의 가로수길과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고 봤다. "쇼핑몰과 맛집이 어우러져 성장했는데 소규모가 커지면 서 대거입이 들어왔다. 임대료가 높아지니 식당들은 뒷골목으로 빠져갔다. 옛날 거리처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골목에 사 기지키었던 모습을 살려보고 싶다." 도심이 번잡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역세권을 벗어나 한적하게 걸을 곳을 찾는 추세다. 망리단길, 경리단길, 연트럴파크 등이 그 예다.

백종원은 "맛집에 줄 서는 것도 하나의 문화가 됐다. 특별한 음식은 아니더라도 골목에 찾아서 먹는 외식 문화가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먹자골목의 파워 풀함도 좋지만 아기가 자라 골목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또 다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바람을 전했다.

앞서 방송된 '푸드트럭'에서 제작진은 연예인 섭외로 고초를 겪은 바 있다. 시청자가 보기에 이들이 절실함이 없었던 까닭이다.

김준수 PD는 남창희와 고재근 섭외 이유에 대해 "첫번째 출연 조건으로 확실히 시간을 할애해 장사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올인할 수 있어야 했다. 남창희는 실제로 조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결국 못됐다"라고 밝혔다.

또 고재근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 보였다"라며 "백종원 대표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상권이 좋지 않은 곳, 빈 가게를 찾아가 도우미 내지는 조력자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원 PD는 "단순히 연예인 섭외는 네티즌 반발이 심하다. 생업이 걸린 분들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연예인들을 홍보 지원군으로 투입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초보 창업자들의 고군분투기를 담은 '푸드트럭'과는 달리 '골목식당'은 최소 5년 이상 장사를 해 온 업주들이 참가한다.

김준수 PD는 "백종원이 말바다부터 성공한 사람이라 자영업자에 대한 애정이 많다"라며 "촬영 후에도 식당 사람들을 따로 모집해 체크를 하기도 한다. 포맷은 변경되지만 프로그램에 백 대표의 노하우가 집약돼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백종원은 "'푸드트럭' 때 창업자들이 고맙다고 말할 때 내가 더 고맙다"라며 "재미를 위해서라면 '강식당', '윤식당'이 더 재밌을 수 있다. SBS는 지상파 방송이기 때문에 보고 나서 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골목식당'은 5일 밤 11시 20분 첫 방송된다.

'신과함께' 천만, 어떻게 원작 부담을 이겨냈다



하지만 엄청난 관심만큼이나 우려의 시선도 한 폭에 받았다. 특히 원작 웹툰이 엄청난 마니아를 이끌고 있는 만큼 원작과 다른 설정들로 원작 팬들의 원성을 샀다. 이 상황에서 예고편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기대와 다른 CG 및 캐릭터의 분장 등에 대해 혹평을 늘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개봉되고 분위기는 반전됐다. '신과함께'는 신들의 행속도를 보이면서 관객을 끌어 모았고 마침내 무술년 첫 천만영화로 등극하게 됐다. 그렇다면 '신과함께'는 어떻게 대중의 우려를 환호로 바꿀 수 있었을까.

7개의 지옥으로 선사한 비주얼 쇼크

예고편으로 살아 공개됐던 지옥의 모습은 팬들의 기대를 100% 만족시키진 어려웠지만, 본 영화를 통해 공개된 지옥은 완전히 달랐다. 누구나 상상 속에서 한번쯤 그려 봤을 법한 저승과 지옥의 모습을 불, 물, 철, 얼음, 거울, 종려, 모래 등 7개의 자연의 물성을 차용하고 대자

를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또한, 살인지옥 변성대왕 역의 정해균, 나태지옥 초강대왕 역의 김해숙, 거짓지옥 대신대왕 역의 김수안, 불의지옥 오관대왕 역의 이경영, 배신지옥 송제대왕 역의 김하늘, 폭력지옥 진광대왕 역의 장광천, 천룡지옥 열라대왕 역의 이정재 등 각 지옥의 대왕 역을 맡은 화려한 배우들의 특별출연까지 더해져 보는 재미를 더했다.

▶ 한국 관객의 감정을 자극한 감동 스토리

연론·배급 시사회를 통해 영화가 공개된 이후 '신과함께'는 가족애를 통해 지나치게 신뢰를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의도된 감동 스토리가 일반 관객을 끌어 모으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 관객들은 '신과함께'가 한국 관객들의 정서를 정확히 읽어내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고 입을 모았고 네티즌 관망팬 대부분도 '감동적이었다' '눈물을 펄펄 쏟았다' 등의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또한 관객들은 가족애를 내세운 영화의 이야기와 주인공이 불효를 저질렀던 일을 떠올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담은 하이라이트 장면이 '신과함께'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면서 영화적 재미를 살려줬다고 호평했다.

또한, 앞서 '오! 브라더스 (2008)' '비너는 괴로워 (2006)' '국가대표 (2009)' 등 한국형 휴먼 코미디에 감동 코드를 녹여냈던 김용화 감독만의 색깔도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 평가도 있다. 특히 관객들은 감동 코드를 극대화한 하이라이트 장면을 꼭 재운 수후역의 김동욱과 어머니 역의 예수정의 절절하고 세심한 연기까지 더해져 관객의 심금을 울렸으며 호평했다.

지상과 월화극, 처참한 시청률

시청률로만 따지면 지상과 월화극의 승자는 KBS '저글러스'다. '저글러스'는 9.4%(닐슨 코리아) 시청률로 2위인 '투깝스(7.7%)'와 3위 '의문의 일승(6.5%)'을 앞질렀다. 그런데 무엇이 '저글러스'의 시청률 1위를 견인했는가를 들여다보면 그게 그리 좋은 일인가의 문제이다. 그것은 다음 아인 달달한 멜로와 가벼운 코미디의 승리다. 결국 지상과 월화극 세 드라마 중 가장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을 그렸기 때문에 시청률에서 앞서갈 수 있었다고 보인다.

'저글러스'는 아예 내놓고 이런 설정을 시작부터 드러낸 바 있다. 직장 상사를 보필하는 비서들을 이른바 '저글러스'라 부르고 그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로맨스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물론 시작점에서는 좌윤이(백진희)라는 인물이 가진 현실적 고충들(전업주부로서의 왕정애(강혜정)도 마찬가지)를 그려내며 무언가 사회의 수직적 시스템에 대한 나름의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던 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6부를 남겨놓은 후반부에 이르러, 가장 주력하고 있는 건 좌윤이와 그가 모시는 상사 남치원(최다니엘) 사이의 달달한 멜로와,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코미디다.

전면적으로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편을 보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중도입장이 가능하다. 그냥 보고 있으면 우리가 흔히 아는 공식을 속에서 넘겨가 만들어가는 달

달함을 느낄 수 있고 상황극 속에 드러나는 코미디에 웃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가지는 못한다. 그나마 시청률이 나오는 건 '예측할 수 없는 전개'의 몰입감 때문이 아니라 '익숙한 멜로 코드'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어서다.

MBC '투깝스'는 '저글러스'와 엮이려뒀지라 하다가 그 수위를 놓쳐버렸다. 그렇게 된 건 차동택(조정석)과 공수창(김선호)이 오기는 빙의 콘셉트가 갖는 흥미가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게 돼서다. 처음에는 그 빙의를 통해 두 사람이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설정이 흥미로웠고, 여기에 송지안(헤리)을 두고 벌이는 기묘한 빙의 삼각관계도 독특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런 빙의의 콘셉트가 드라마가 진정 하려는 주된 메시지나 목표의식을 드러내지 못하고 작은 상황극에 자꾸만 머물러 있

으면서 드라마의 몰입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송지안과의 멜로가 뒤쫓이면서 수사극과 멜로의 공존은 시너지보다는 몰입을 깨는 역효과로 이어졌다.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멜로가 아니라 빙의의 수사극을 건넌다면 생각이 든다.

SBS '의문의 일승'은 초반 너무 황당한 설정으로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만들지 못했다. 그 결과 계속 이어지는 액션과 반전들이 그만한 임팩트를 갖기가 힘들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다시 고개를 드는 게 오일승(윤균상)과 진진영(정혜성)의 멜로다. 물론 이 멜로는 두 사람이 화상시절부터 알고 지냈다는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을 때 예고된 것이지만 장르불과 멜로의 연결이 시너지를 만들려면 먼저 장르적 색깔에 대한 몰입이 우선 되어야 한다.

오늘의 순세 2018년 1월 5일 금요일 (음력 11월 19일)

<p>▶ 쥐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얻었으나 허영심이 가득하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후퇴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밖에서만 인정받지 말고 자신의 의의가 무엇인지, 가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할 때다.</p>	<p>▶ 용기 계획된 일들이 한 발짝 올라가는데 또 다른 일로 차질이 생겨 마음고생이 심하구나. 그, 바, 오 성씨 희망을 가지라. 빛이 보인다. 용기만이 희망의 등대임을 알고 인내하라. 당신을 생각하며 지켜주는 자가 있지 않은가.</p>	<p>▶ 원숭이 감정부터 앞세운다면 서로 적이 될 수 있으니 상대가 강하게 대해도 의연한 자세로 지혜롭게 처신함이 좋을 듯. 금전은 금한 것은 막을 수 있으나 애정은 장벽이 생기는 격이니 한숨만 실 뵈이다. 잘못하다 평생 후회할 일 생길 수.</p>
<p>▶ 개 자기주장대로 임하다 남의 일에 말려들어 책임질 일 생길 수. 젊음도 한때, 사랑도 한때이지만 부수를 지켜 가장만을 생각하라. 분별없이 저질러 놓은 것은 지혜롭게 대처하고, 자녀 건강을 돌보라 신병 수가 따른다.</p>	<p>▶ 늑대 여인의 도움으로 귀인을 만날 수. 매사 소조롭게 풀리니 오랜만에 웃을 수 있구나. 신의를 지키고, 주어진 일에 전념을 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오늘은 휴식을 취하여 건강을 돌보라.</p>	<p>▶ 말 현재에 충실하고 욕심을 버리라. 얼얼해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 심수를 계기로 반성하고 후회 없는 미래를 기약하는 것이 좋겠다. 새로운 각오로 앞길을 설계하고 나, 그, 오 성씨를 조심하라. 유혹에 다시 빠질 수 있다.</p>
<p>▶ 호랑이 성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 모든 일에 인내가 필요한 때다. 서두르면 실패를 자초한다. 애정은 시간이 많다고 장난하지 말라. 불륜은 일생 후회하는 일이 생기니 그, 바, 오 성씨는 유혹하거나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라.</p>	<p>▶ 곰 준비 없이 무리하게 시작하면 말썽만 생기고 의욕은 상실하며 포기하게 된다. 인내하면 최상의 길이 열리겠다. 연초록색은 내일의 에너지가 될 것이며, 혼수 말이 있는 미혼자는 배필에 가까울 정도로 진전될 수. 복록이 길하다.</p>	<p>▶ 닭 고집대로 일 처리하지 말고 지혜롭게 판단해 현 상황을 헤쳐 나가라. 어수선한 주위를 냉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가정과 사업 또한 안정된 모습을 이룰 듯. 여러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택한 사람이 배필임을 명심할 것.</p>
<p>▶ 토끼 자신의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언행도 신경 써야 한다. 성사가 될 듯한 혼인에 약간 구설이 있을 듯하구나. 모략을 잘 피해 감이 좋겠고, 맞장구는 치지 말라. 친구 간 의의 상할 수. 나, 그, 오 성씨가 방해될 듯. 빨간색이 오늘의 색임을 알라.</p>	<p>▶ 물고기 직장인은 자존심을 너무 세우지 말고 상사에 뜻에 협력한다면 축망을 받을 수. 8, 9, 12월생 친지나 친구 간 금전으로 인해 원망을 살 일이 우려되니 거래에서 신용을 지킬 때 새로운 계획에 좋은 결과 있을 듯.</p>	<p>▶ 돼지 사업은 현재 이익보다 먼 안목을 볼 줄 알라. 계획한 일이 부진하다고 증도에 포기하다 기회마저 놓치지 말고 전진하라. 대성할 수다. 3, 5, 7월생 남자는 언행을 조심할 것. 여성 유혹에 빠지면 헤어지기 힘들 듯.</p>